<지원동기>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은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고 정부에서도 불량 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여 이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은 이제 전 국민의 최고관심사가 되었고, 저 또한 ‘잘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불량 식품이나 먹거리에 대한 안전에 힘쓰고자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식약처나 식약처 산하 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근무하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식품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대학교에서도 교양과목보다는 전공과목을 위주로 수강하였고 실험실습과목도 고루 수강하며 좋은 평점을 유지하였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직종을 찾아보던 중 변호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문과와 이과의 통합은 제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전공수업을 들으며 식품업계에서도 단순히 식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거나 급식계약 등의 계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약처나 식품안전정보원에서도 식품관련법이나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여러 관련 정책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좋은 평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기본권론 수업에서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도 법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좋은 강의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껏 잘 유지해 온 평점과 법학이 적성에 맞다는 생각으로 로스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3년간의 성실한 공부를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법무법인 중에서도 식품이나 제약분야에서 여러 가지 법률 자문과 송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는 식약처에서 식품관련법 제정과 검토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모두 책임지는 법조인이 될 것입니다. (1171)

<학교생활>

저는 식품영양학과 학생으로서 50학점의 전공과목과, 복수전공인 법학과 39학점의 전공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전공수업에서는 식품과 영양으로 나누어 식품의 성분분석이나 몸 속에서의 영양소 흡수기전, 식품과 미생물분석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식품에 대한 위생에서 모든 식품에 미생물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인체에 무해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학전공의 경우, 변호사 시험과목을 위주로 기초적인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헌법 등을 고루 학습했고 97.4의 높은 평점을 유지했습니다. 형법총론을 수강했을 때에는 너무 추상적인 내용과 다양한 학설,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수님께 많은 조언을 구했고 형법각론의 경우에는 미리 계절학기 수업을 청강하여 예습을 하고 정규학기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청강을 했을 때에도 성실히 수업에 참석했고 시험을 봤으며 전체 1등으로 계절 학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헌법과 행정법, 상법 과목들은 모두 논술형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막막하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답안지 쓰는 법을 여쭤보았고 목차부터 잡아서 하나씩 써 내려가면 된다는 답변과 함께 케이스 형태의 답안 쓰는 법을 미리 찍어두신 영상도 받았습니다. 이후 목차를 쓰는 연습부터 해서 전체 글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했고 이제는 논술형 답안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과 형법의 경우에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객관식 형태의 시험인 경우에는 대부분 긴 케이스 형태의 문제로 연습을 했는데 덕분에 주어진 사례에 맞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리더십그룹 활동으로써 2년 반 동안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1년간 의전이나 캠퍼스 투어 시 필요한 정보 숙지와 발표 연습, 위기상황 대처능력 등을 교육받았고 이를 통해 책임감과 끈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주로 입학식이나 졸업식, 협약식 등과 같은 학교 내외의 주요 행사에서 의전이나 기수단 역할을 맡았고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준비성, 위기대처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애교심을 느꼈습니다.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수업에서 진행되는 조별발표에서 늘 발표를 도맡아 했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252)